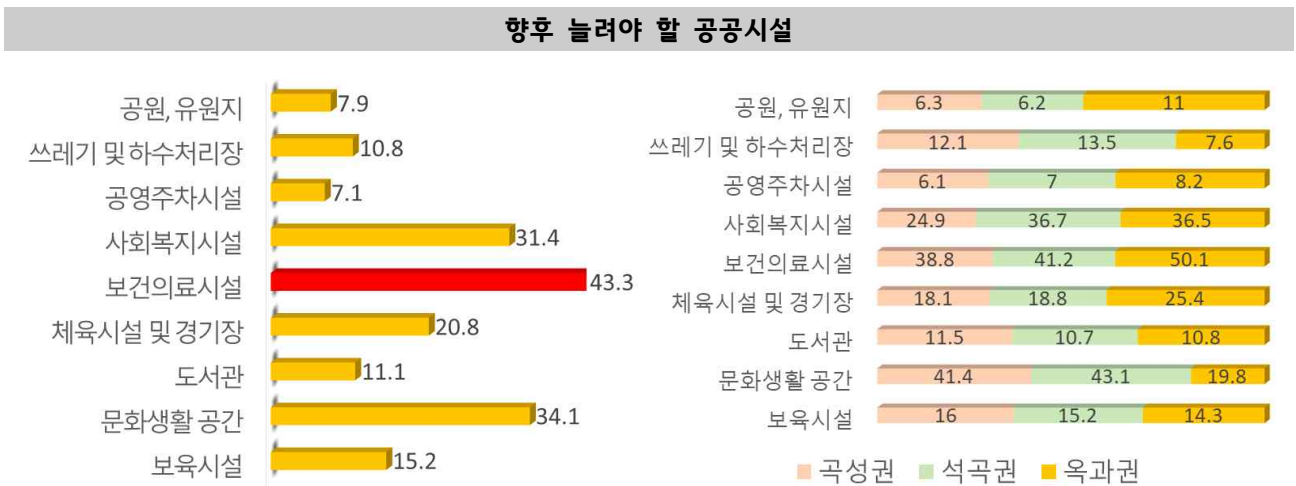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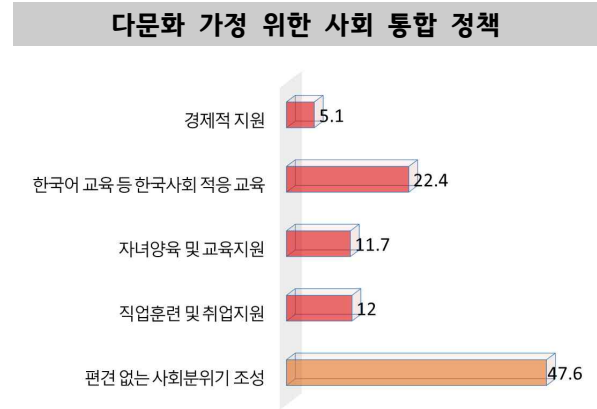
8. 사회 · 복지

- ▶ 군민이 생각하는 향후 늘리거나 신설해야 할 공공 편의시설은 「보건의료시설(43.3%)」이 가장 많으며, 「문화생활공간(34.1%)」과 「사회복지시설(31.4%)」도 늘리거나 신설해야 할 공공 편의시설임



- ▶ 응답자의 8.0%는 미취학 자녀가 있으며 미취학 자녀의 주요 보육자 및 기관은 「어린이집(55.2%)」이고, 이들의 보육방법에 대해 64.9%가 만족(매우+약간)하고 있음
- ▶ 군민이 선호하는 노후의 동거형태는 「부부 둘이서(66.9%)」가 가장 많았으며 가장 선호하는 요양장소는 「자택(52.2%)」임
- ▶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는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66.1%)」, 「노인돌봄종합서비스(42.7%)」 순임

- ▶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은 「편견 없는 사회 분위기 조성(47.6%)」이며, 다음으로 「한국어 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교육(22.4%)」임



- ▶ 곡성군내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에는 「건강문제(64.8%)」가 가장 많고, 「경제적인 어려움(57.3%)」도 많으며 「외로움·소외감」은 점차 많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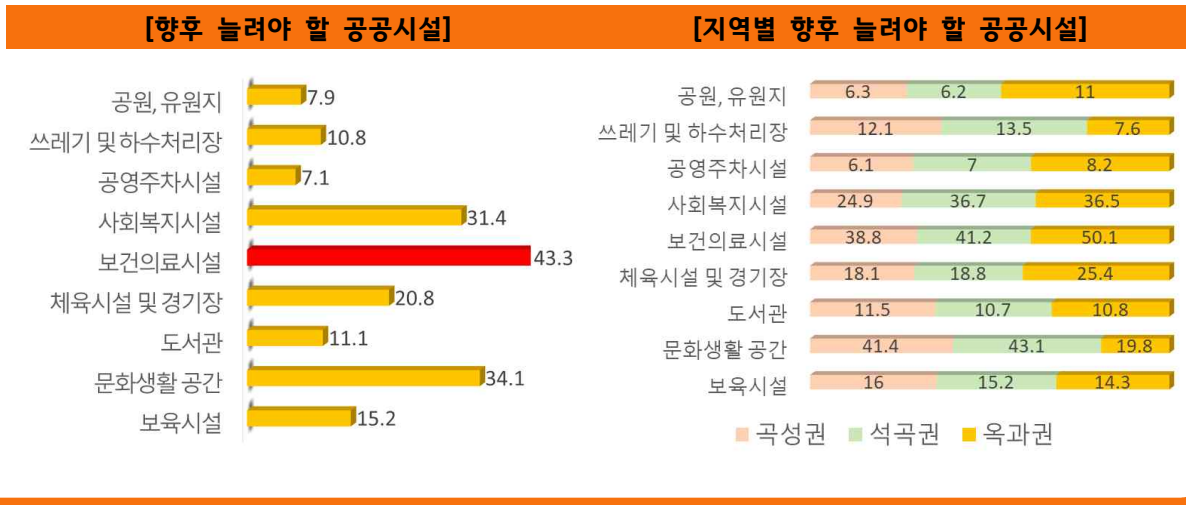
8. 사회 · 복지 부문

- 8 - 1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 8 - 2 미취학 자녀 보육 만족도
- 8 - 3 선호하는 노후 생활형태
- 8 - 4 향후 늘려야 할 복지 서비스
- 8 - 5 다문화가정의 사회 통합
- 8 - 3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8 - 1.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복수응답)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은「보건의료시설(43.3%)」

- 곡성군민의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에는 「보건의료시설(43.3%)」이 가장 높고, 「문화생활공간(34.1%)」, 「사회복지시설(31.4%)」, 「체육 및 경기장(20.8%)」 순으로 나타남.
-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에는 지역별·성별로 차이가 나타남
 - 지역별로 곡성권과 석곡권은 「문화생활공간」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옥과권은 「보건의료시설」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 성별에서는 남자(39.3%)와 여자(47.0%) 모두 「보건의료시설」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보건의료시설」 다음으로 필요한 시설에는 남자는 「문화생활공간」이 37.4%로 여자는 「사회복지시설」이 36.0%로 나타남



<표 8-1>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복수응답)

(단위: %)

구분	보육 시설	문화생활 공간	도서관	체육시설 및 경기장	보건 의료시설	사회 복지시설	공영 주차시설	쓰레기 및 하수 처리장	공원, 유원지	기타
2015년										
2017년	15.2	34.1	11.1	20.8	43.3	31.4	7.1	10.8	7.9	0.8
< 지역별 >										
곡성권	16.0	41.4	11.5	18.1	38.8	24.9	6.1	12.1	6.3	1.3
석곡권	15.2	43.1	10.7	18.8	41.2	36.7	7.0	13.5	6.2	0.4
옥과권	14.3	19.8	10.8	25.4	50.1	36.5	8.2	7.6	11.0	0.4
< 성별 >										
남자	13.4	37.4	12.5	25.2	39.3	26.6	7.6	11.2	7.5	0.9
여자	16.9	31.0	9.8	16.7	47.0	36.0	6.6	10.4	8.4	0.7

※자료: 2017년 전라남도·곡성군 사회조사

8 - 2. 미취학 자녀 보육 기관 및 만족도

미취학 자녀의 보육자 및 기관은「어린이집(55.2%)」이 가장 많고 보육방법에 대해 64.9%가 만족(매우+약간)하고 있음

- 「미취학 자녀」가 있음이 8.0%로 나타남

- 지역별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지역은 곡성권이 11.0%로 가장 높으며 옥과권이 6.4%, 석곡권이 5.0%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미취학자녀 「있음」은 30~39세가 65.8%로 가장 높으며 40~49세가 21.8%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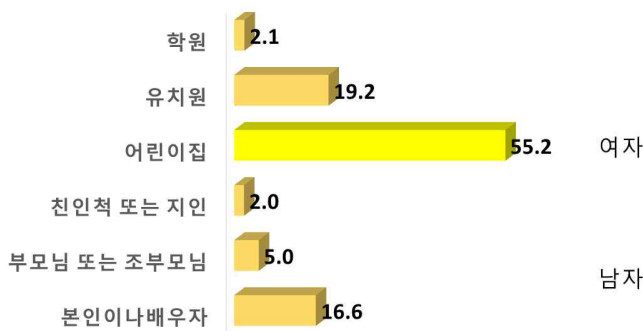
- 「미취학 자녀」의 보육자(기관)는 「어린이집」이 55.2%로 1순위임

- 미취학 자녀의 보육자(기관)는 「어린이집」이 55.2%이며 「유치원」이 19.2%, 「본인이나 배우자」가 16.6%로 나타남
- 미취학 자녀의 74.4%가 보육기관에서 돌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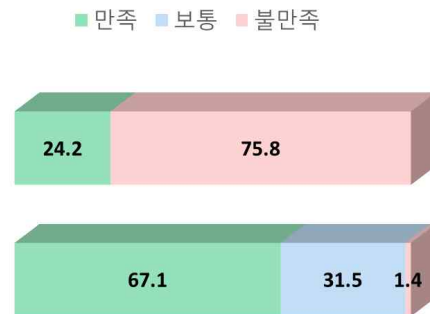
- 보육방법 만족정도는 만족(매우+약간)이 64.9%이며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을 포함하면 94.8%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자는 75.8%가 미취학 자녀의 보육방법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미취학 자녀 보육자(기관)]



[성별 보육방법 만족정도]



<표 8-2> 미취학 보육자 및 기관

(단위: %)

구 분	계	본인이나 배우자	부 또 는 부 모	님 조 님	친 또 지	인 척 는 인	어 린 이 집	유 치 원	학 원	기 타
2 0 1 5 년	100.0									
2 0 1 7 년	100.0	16.6	5.0	2.0	55.2	19.2	2.1			
< 지 역 별 >										
곡 성 권	100.0	3.5	8.8	3.5	58.7	25.5				
석 곡 권	100.0	17.7			65.8	16.5				
옥 과 권	100.0	41.2			43.6	8.3	6.9			
< 성 별 >										
남 자	100.0	15.4	5.3		57.0	20.2	2.2			
여 자	100.0	38.1		38.1	23.8					

<표 8-3> 보육방법 및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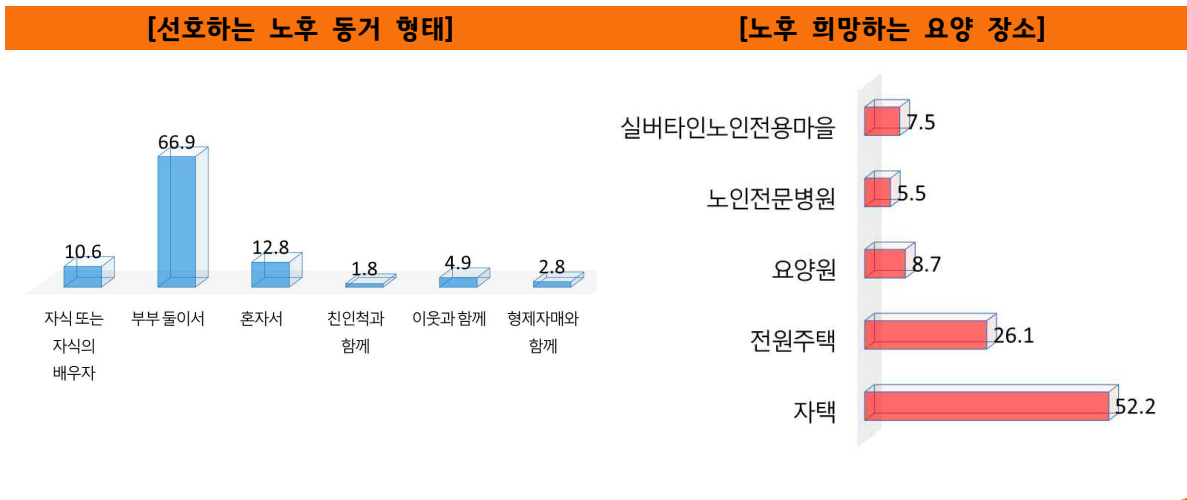
구 분	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2 0 1 7 년	100.0	14.2	50.7	29.9	5.2	-
< 지 역 별 >						
곡 성 권	100.0	8.8	52.8	31.5	6.8	-
석 곡 권	100.0	16.5	50.0	33.5	-	-
옥 과 권	100.0	23.2	47.2	25.1	4.4	-
< 성 별 >						
남 자	100.0	13.6	53.5	31.5	1.4	-
여 자	100.0	24.2	-	-	75.8	-

※자료: 2017년 전라남도·곡성군 사회조사

8 - 3. 선호하는 노후 생활형태

노후에 선호하는 동거형태는「부부 둘이서(66.9%),」

- 가장 선호하는 노후 동거형태는 「부부 둘이서」가 66.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혼자서」 12.8%, 「자식 또는 자식의 배우자」 10.6% 순으로 나타남
- 가장 선호하는 노후에 요양할 장소는 「자택」으로 52.2%임
 - 뒤를 이어 「전원주택」 26.1%, 「요양원」 8.7% 순위로 나타남
 - 성별에서는 「자택」 비율은 ‘여자’ 55.5% ‘남자’ 48.8%로 여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에서는 10~30대까지는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반면 40대 이상은 「자택」을 더 선호함
 - 혼인상태별에서 「미혼」은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반면 「배우자 있음」과 「사별/이혼」은 자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8-4> 선호하는 노후 동거 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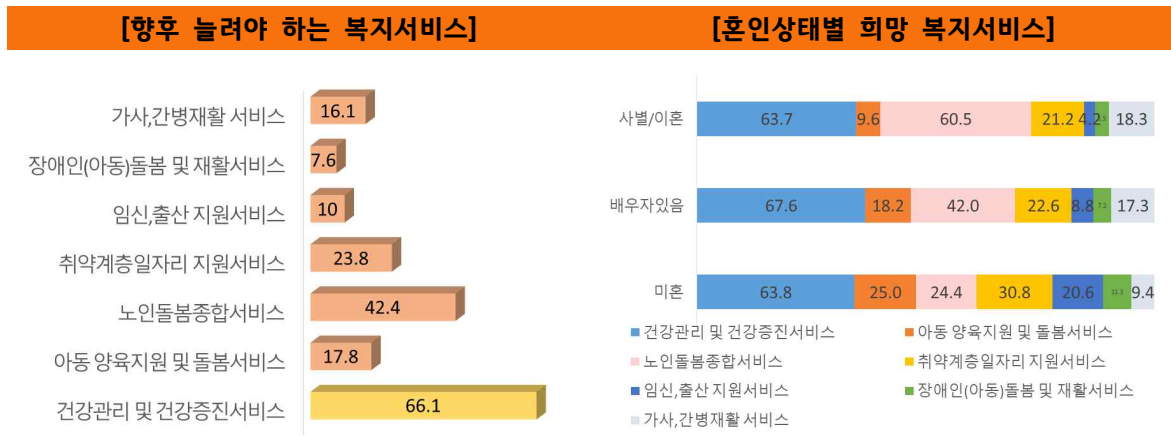
구분	계	자 또 자 식 의 배 우	자 식 의 배 우	부 들 이 부 서	혼 자 서	친 인 척 과 함 계	이 웃 과 함 계	형 제 자 매 와 함 계	기 타
2017년	100.0	10.6	66.9	12.8	1.8	4.9	2.8	0.3	
<지역별>									
곡성권	100.0	11.4	64.5	11.3	2.5	5.3	4.4	0.5	
석곡권	100.0	14.2	59.4	14.1	2.3	9.0	0.9	-	
옥과권	100.0	7.5	74.0	14.0	0.6	1.8	1.9	0.3	

※자료: 2017년 전라남도·곡성군 사회조사

8 - 4.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복수응답)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는「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서비스(66.1%)」

-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는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가 66.1%로 가장 많이 나타남(2015년도에 비해 7.9% 상승)
 - 다음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42.4%, 「아동양육지원종합서비스」 17.8%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석곡권이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와 더불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사별/이혼은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서비스」와 더불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미혼’은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의 비중이 높고 ‘배우자 있음’은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의 비중이 높지만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한 비중도 42.0%로 나타남



<표 8-5>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복수응답)

(단위: %)

구분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	아동 양육지원 및 돌봄서비스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서비스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장애인 (아동) 돌봄 및 재활서비스	가사·간병 재활 서비스	기타
2015년	58.2	21.2	32.8	33.3	12.6	9.1	17.1	0.5
2017년	66.1	17.8	42.4	23.8	10.0	7.6	16.1	0.7
<지역별>								
곡성권	69.5	16.2	37.5	24.4	10.7	6.0	15.8	0.6
석곡권	57.8	18.0	51.3	24.4	8.5	14.8	16.8	0.8
옥과권	66.8	19.6	43.3	22.7	10.0	5.4	15.9	0.7
<혼인상태별>								
미혼	63.8	25.0	24.4	30.8	20.6	11.3	9.4	1.0
배우자있음	67.6	18.2	42.0	22.6	8.8	7.2	17.3	0.7
사별/이혼	63.7	9.6	60.5	21.2	4.2	5.5	18.3	0.3

※자료: 2017년 전라남도·곡성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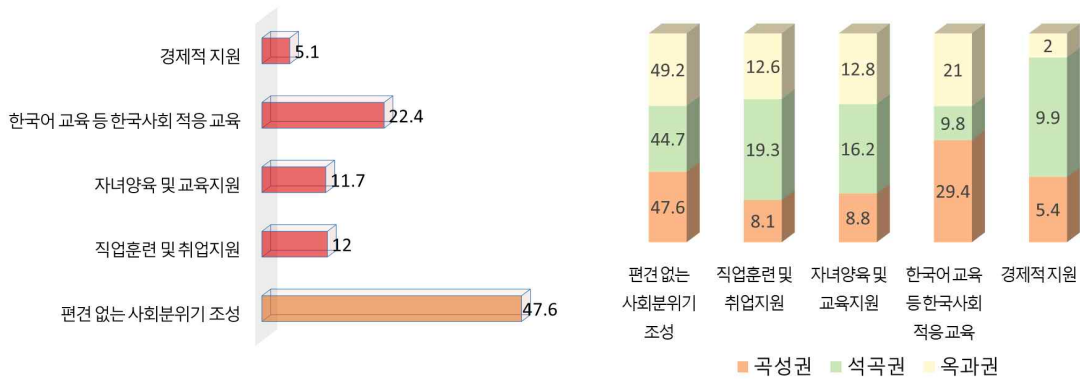
8 - 5.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 정책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해 「편견 없는 사회 분위기 조성(47.6%)이 가장 필요

- 곡성군민의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 정책” 중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편견 없는 사회 분위기 조성」 47.6%로 가장 높고, 「한국어 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 교육」이 22.4%로 나타남.
- ‘석곡권’은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다음으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한국어 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지배적임

[다문화 가정 위한 사회 통합 정책]

[지역별 다문화 가정 위한 사회 통합 정책]



<표 8-6>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 정책

(단위: %)

구 분	계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한국어 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 교육	경제적 지원	기타
2017년	100.0	47.6	12.0	11.7	22.4	5.1	1.2
<지역별>							
곡성권	100.0	47.6	8.1	8.8	29.4	5.4	0.8
석곡권	100.0	44.7	19.3	16.2	9.8	9.9	-
옥과권	100.0	49.2	12.6	12.8	21.0	2.0	2.3
<성별>							
남자	100.0	50.3	12.9	9.2	21.8	4.5	1.2
여자	100.0	45.0	11.1	14.1	23.0	5.7	1.1
<연령별>							
15~29세	100.0	51.5	5.7	12.8	24.3	5.0	0.6
30~39세	100.0	56.8	10.1	6.2	21.5	5.3	-
40~49세	100.0	57.6	11.7	9.3	18.8	1.2	1.3
50~59세	100.0	47.7	8.6	10.9	23.9	7.9	1.1
60세 이상	100.0	45.9	16.0	11.3	22.0	4.1	0.7
65세 이상	100.0	40.3	16.0	14.0	22.5	5.4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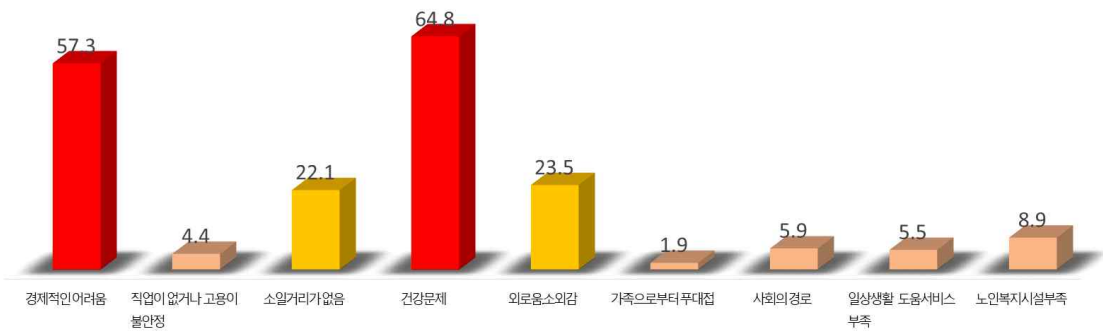
※자료: 2017년 전라남도·곡성군 사회조사

8 - 6.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65세이상, 복수응답)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건강문제」64.8%, 「경제적인 어려움」57.3%, 「외로움·소외감」은 점차 증가

-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곡성군민의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에는 「건강문제」가 64.8%로 가장 높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57.3%로 다소 높게 나타남
 - 지역별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옥과권은 「건강문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에서는 여자가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소외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중졸이하’는 「건강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도 높지만 「외로움·소외감」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고졸’은 「건강문제」가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대졸’은 「건강문제」와 「노인복지시설 부족」이 높게 나타남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표 8-7>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복수응답)

(단위: %)

구분	경제적인 어려움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	소일거리가 없음	건강문제	외로움·소외감	가족으로부터 푸대접	사회의 경로 의식 악화	일상생활 도움서비스 부족	노인복지시설 부족	기타
2015년	63.0	3.0	10.7	77.1	14.2	1.5	7.9	7.5	11.2	2.0
2017년	57.3	4.4	22.1	64.8	23.5	1.9	5.9	5.5	8.9	2.2
< 지역별 >										
곡성권	55.2	4.4	22.3	66.2	26.8	1.8	3.8	4.6	10.0	1.9
석곡권	65.1	5.6	23.4	55.0	24.1	3.4	5.5	6.2	9.3	1.0
옥과권	54.2	3.4	20.7	70.4	18.6	.9	8.9	6.2	7.1	3.7
< 성별 >										
남자	51.2	7.7	21.9	64.8	15.8	1.5	9.5	6.8	11.8	4.3
여자	61.1	2.4	22.2	64.7	28.2	2.2	3.7	4.8	7.1	1.0

※자료: 2017년 전라남도·곡성군 사회조사